

##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현진\* · 정슬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논의
II. 여성 직장인의 음주와 관련한 연구동향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술자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빼질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직장인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접대나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여겨지는 회식을 통해 대부분의 음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인의 96%정도가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경험(최승희 등, 2001)이 있고, 60%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을 마시며 일인당 월 5.44회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의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5병이고 월간 평균 음주량은

소주 10병 정도로 나타났다(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6).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에서 보고한 직장인을 제외한 일반성인의 음주비율 54.5%와 비교할 때 직장인들의 음주가 훨씬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인의 음주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김통원 등, 2001), 직장인의 음주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장인으로 성장하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잘못된 직장음주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감을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학위논문에 사용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위논문의 연구문제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교신저자: 정슬기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 156-756)

전화번호: 02-820-5152, Fax: 814-1294, E-mail: chungs@cau.ac.kr

▪ 투고일 2008.4.8

▪ 수정일 2008.5.20

▪ 개재확정일 2008.9.20

해소시키고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측면에서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산업재해, 각종 범죄발생 및 의료비 지출 등과 같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박은영과 김영환, 2005; 정우진, 2006).

특히 최근 들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사회에서 여성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도에는 42.8%였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50.3%에 도달했고, 전체 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 구성비도 1980년 38.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6년 41.9%에 이르렀다(통계청, 2007). 이와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에 따르면, 성인여성의 현음주자 비율이 1989년에는 23.0%였으나 1998년에 33.9%를 넘어 2001년에는 67.4%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77.0%에 도달하였다. 이는 성인남성의 현음주자 비율<sup>1)</sup>과 비교하여 볼 때, 성인 여성의 현음주자 비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음주자가 남성 음주자에 비해 절대적 수치에서는 아직 낮지만, 점점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용주, 1999).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남성보다 체내

수분이 적고 지방이 많아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Ammendola 등, 2000; NIAAA, 1999b; Pfefferbaum 등, 2001; Schweinsburg 등, 2003; WHO, 2005b) 더 빨리 취하며 더 쉽게 중독되는 등 생물학적으로 남성에 비해 알코올에 더 취약하다(Angove와 Fothergill, 2003; Graham 등, 1998; Holmila와 Raitasalo, 2005; Kinney, 2003).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늦게 음주를 시작하지만 음주시작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겪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같은 음주량이지만 남성보다 신체적 피해가 훨씬 크며 더 빨리 만성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Angove와 Fothergill, 2003; Brienza와 Stein, 2002; Kinney, 2003; WHO, 2005b). 이와 같이 여성음주는 남성음주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음주가 모든 여성 집단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은 다른 여성 집단에 비해 음주기회와 음주량이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음주빈도와 음주관련문제를 경험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er와 Harford, 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7).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직업에 따른 여성의 음주 경험비율은 사무직과 학생이 높았고, 한 달 평균음주량은 판매서비스직과 기능단순노무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알코올 의존 유병율도 기능단순노무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현 음주자 중 음주빈도가 한 달에 2-4번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문행정관리직

1) 성인남성(20세~59세)의 현음주자 비율을 살펴보면, 1989년에 77.3%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5년에는 56.8%로 나타났고, 다시 증가하여 1998년에는 73.2%, 2001년에는 87.3%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8.97%), 사무직(48.10%), 판매서비스직(40.12%)이 기타직업군<sup>2)</sup>(32.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문제음주율의 경우에도 기타직업군(8.31%)에 비해 전문행정관리직(15.24%), 사무직(21.04%)과 판매서비스직(21.05%)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또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06)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여성 직장인 중 현재음주자의 비율이 89.0%, 폭음자가 33.9%로 나타나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여성 직장인의 음주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며, 올바른 음주문화정착과 음주관련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물론 치료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직장은 개인의 습관이 발달되고 수정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음주행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Rice 등, 1997). 음주를 권장하고 승인하는 직장 내 음주환경은 직원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mes와 Janes, 1992). 음주에 대한 직장의 환경은 직장의 음주에 대한 허용도, 회식문화, 상사의 음주태도, 직장 내 음주관련 규율 등을 포함한다(Chung 등, 2007; NIAAA, 1999a). 음주를 하는 주체는 개인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외에도 환경적 요인, 특히 개인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음주관련 환경은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집단의 단합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관련 연구는 이제 시작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취학과 주부 및 미취학을 기타 직업으로 분류하였다.

단계에 있으며, 이 조차도 거의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여성 직장인들의 음주문화와 음주행동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음주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젠더 고정관념을 잘 이해하여 음주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하다(WHO, 2005a). 여성과 남성의 음주행동의 차이는 음주동기와 결과 및 환경적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Schmidt 등, 1990)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는 작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직장인이 인식하는 음주와 관련된 변수들을 탐색하여 여성 직장인의 음주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여성 직장인 위험음주 및 폭음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과 음주문화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여성 직장인의 음주문제예방과 감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여성 직장인의 음주와 관련한 연구동향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다른 요소들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한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이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직장은 음주가 발생하기 위한 근원이자 음주규범이 발달하는 환경이며, 성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원천으로써 인식되어진다(Rice 등, 1997).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직종, 직위<sup>3)</sup>, 월소득, 직장형태, 회식빈도 등이 음주량과 음주빈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NIAAA, 1999a),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회식이 음주빈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예측되었다(권구영, 2005; 김통원, 2001). 직장 내 음주문화는 직장 혹은 그와 같은 하위집단 내에 형성된 문화를 말하며, 직장 내 문화는 음주를 촉진하거나 자제하는 등의 많은 영향을 미친다(NIAAA, 1999a).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음주는 집단문화로써 함께 술을 마시는 집단을 통해 받는 영향의 비중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직장 내 구성원들 사이에 음주를 자주 혹은 많이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다른 구성원들도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음주를 많이하게 된다(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6). 음주 하위문화와 직장 내 음주문제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Yang 등, 2001), 회식이 많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음주하위문화가 발달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권구영, 2005). 친구나 동료와 같은 주변인의 영향도 직장과 관련한 음주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3) 다른 직종보다 영업마케팅 직종의 사람들의 음주량이나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높았고, 직위가 높아질수록 음주량과 음주횟수 및 문제음주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통원, 2001; 권구영, 2005).

(Ames와 Grube, 1999), 직장인의 32.7%가 함께 술을 마시는 주변 사람들의 음주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직장인은 2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onard와 Blane, 1999).

지금까지의 국내외 음주관련 연구는 거의 대부분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 직장인을 따로 지목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위험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성별(Bernards 등, 2007), 음주동기, 문제음주가족력, 절주행위, 결혼상태의 개인적 요인과 음주 회식빈도 및 폭음 촉진상황의 환경적 요인(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6)이 문제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기대와 음주거절효능감 및 직장 내 음주관련 태도도 직장인의 폭음 및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이수영, 2006). 이로 미루어보아, 성별에 따른 음주정도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직장인의 음주는 남성 직장인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의 음주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행동과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실태보고나(김광기, 1996; 김통원, 2001; 박영미 등, 2006) 음주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등의 특정요인과의 단편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거나(최승희 등, 2001; 권구영, 2005; 윤숙희 등, 2006; Cooper 등, 1990; Frone 등, 1999; Greenberg와 Grungberg, 1995; Grunberg 등, 1998; Hagihara 등, 2003; Johnson과 White, 1995; McCreary와 Sadave, 2000) 혹은 특정한 근거에 기반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직장인 음주예방과 대책에 대한 필요성만을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김상대 등, 2002; 이미형과 이영자, 2000; Roman과 Blum, 2002). 여성음주에 관한 연구도 음주실태(허은정 등, 2001; Jonas 등, 2000)나 음주문화(박희랑과 이장주, 2004)를 기술하거나 여자대학생(신완철과 김혜경, 2001; 허혜경 등, 2003) 혹은 알코올 치료에 참여하는 여성(박두명, 1996; 성상경, 1999; 정원후, 1997; Brienza와 Stein, 2002; Cowan, 2003; Palm, 2007)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여성음주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는 여성음주를 하나의 현상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음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사고, 우울, 의료적 문제 등의 음주관련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김광숙, 2003; 김옥수와 김계하, 2001; 신완철과 김혜경, 2001; 허은정 등, 2001; Bernards 등, 2007). 이러한 연구에서는 여성음주를 통해 초래되는 음주관련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여성음주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음주는 남성과는 달리 결혼과 가족생활을 봉괴를 초래하며 아동, 직장나아가 사회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종종 다루어지고 있다(Perodeau, 1984; Schimidt 등, 1990, 재인용). 이는 여성음주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그 동안 여성음주에 대한 비교연구는 부족하였으며 이는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도 장애물로 작용하였다(Beckman, 1985; Schmidt, 1990에서 재인용). 다시 말하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남성과

구분함으로써 남성음주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나, 음주가 여성들의 역할 수행에 있어 하나의 방해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남성과는 달리 낙인과 같은 사회적인 차별을 가하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에 음주관련연구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백인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여성에게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Schmidt 등, 1990). 여성음주가 본격적으로 연구의 관심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 그 전까지는 알코올 중독과 약물의존을 하나의 질병이나 현상 그 자체로 간주하여 젠더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Brienza와 Stein, 2002; Kinney, 2003),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음주에 관한 젠더차이를 부각하여 여성음주를 남성음주와 구분되는 현상으로 접근하고 있다(Angove와 Fothergill, 2003; Brienza와 Stein, 2002; Cowan 등, 2003; Hodgson과 John, 2004; Holdcraft와 Iacono., 2002; Holmila와 Raitasalo., 2005; McPherson 등, 2004; Smith와 Weisner, 2000; Wilsnack, 2000; York 등, 2003). 여성과 남성의 음주행동이 비슷해져간다는 수렴가설(convergence)에 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지만(Hodgson과 John, 2004; Holmila와 Raitasalo, 2005; McPherson 등, 2004),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서구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성과 남성의 음주에 대한 인식과 음주문제 발생율이 매우 다르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아직까지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젠더영향이 음주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직장인의 음주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상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Zins 등, 2003)과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김광숙, 2003; 김명순과 김광기, 2004; 김옥수와 김계하, 2001), 사회적 분위기(Svare 등, 2004)와 음주의 관계를 보는 데 치중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인해 여성 음주자 집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직장인들만의 음주문화와 음주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음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연구는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음주행동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를 간과하거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여성에게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데 그쳤다. 둘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남성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직장인의 음주문화와 음주행동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장인의 음주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개인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기존의 연구는 표면적인 직장인의 음주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나 음주관련요인에 대한 단편적인 관계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여성 직장인의 문제음주를 예방할 수 있는 예측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과 같이 여성 직장인 음주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도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직장인이 인식하는 음주관

련 변수는 무엇인가? 둘째, 여성 직장인의 음주 행동(위험음주, 폭음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직장의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문제를 통해 여성 직장인의 음주문화와 음주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성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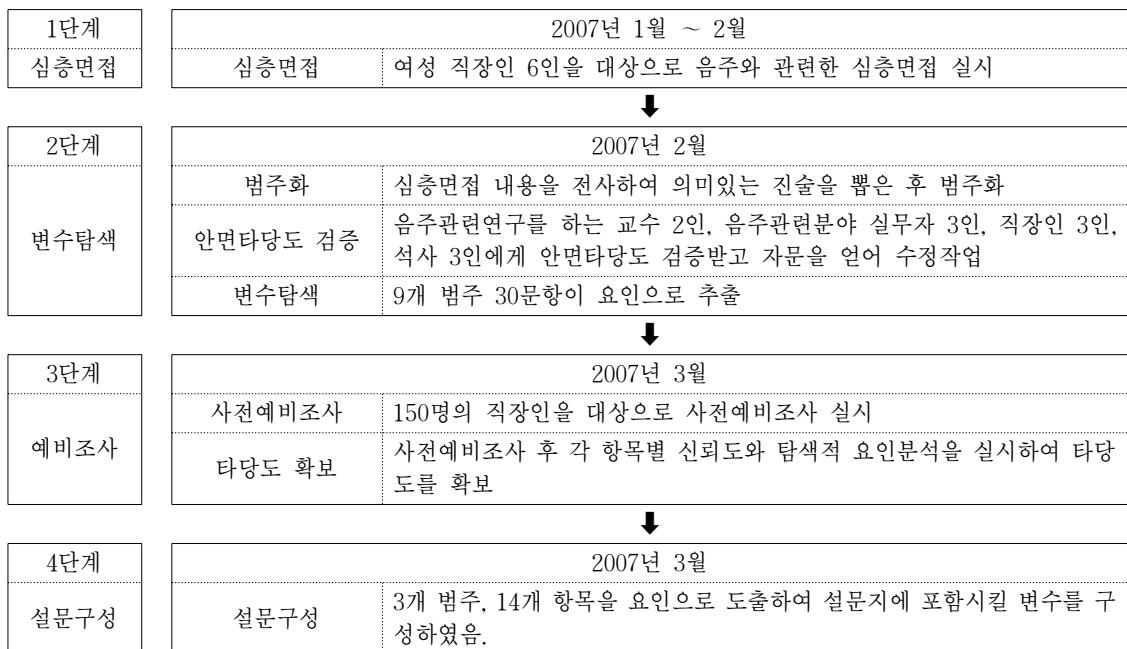
본 연구는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여 음주예방과 치료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음주관련 연구가 매우 드물고, 직장의 환경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지를 구성하기에 앞서, 일차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직장인이 인식하는 직장의 음주환경관련 변수를 도출하였고, 여기에 표준화된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 1. 심층면접

설문지에 포함시킬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그림 1>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여성 직장인이 인식하는 직장 내 음주관련 변수를 탐색하였다. 심층면접은 2007년 1, 2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6명의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연구에 사용될 다

른 척도로 측정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선발하였고, 음주관련연구 전문가 2인, 음주관련분야 실무자 3인과 조사대상자인 직장인 3인 및 석사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고 자문을 얻어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9개 범주의 39문항으로 요인들이 추출되었고, 15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항목

별 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및 안면타당도를 고려하여 각 범주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개의 범주(음주의 긍정적 기능, 직장 내 음주문화, 회식 때 술자리에서의 부담감)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변수를 14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뒤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는 .61에서 .82로 나타났다.



<그림 1> 심층면접을 통한 변수탐색과정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수도권(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과 기관<sup>4)</sup>에 근무하고 있

4) 본 연구는 직장인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일차적으로는 전문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단순 노무직으로 직장인의 범위를 국한하였고, 다음으로 동질 집단 내에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

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직장인 400명을 선정하여 2007년 3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 워크넷의 한국직업사전의 한국표준직업별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전문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サービ

해 기업과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스직, 기능단순노무직을 직장인으로 구분하였고 농어업, 학생, 주부, 기타(군인과 무직)를 비직장인으로 포함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 소속된 직장인들의 표집틀(sampling frame)을 바탕으로 무작위 표집을 통해 표집오차를 고려한 후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Monette 등, 2005).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부의 확보가 어렵고, 비용과 시간 등으로 인한 실제적인 조사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의도적으로 추출하여 해당기업 관리자의 협조를 얻은 후, 설문지 응답에 동의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임의표집(availability sampling)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여성 직장인이지만, 우선 남성 직장인과 비교하여 구분되는 여성 직장인의 음주문화와 음주행동을 탐색하기 위해 남녀 직장인 모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총 380부(95%)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하고 총 375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 3. 주요변수

본 연구는 여성 직장인의 음주문화와 음주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관련 변수를 도출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음주기대와 음주의 긍정적 기능을 포함시켰고, 환경적 요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 주변인의 음주정도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직장 내 음주문화와 희식 때 술자리에서의 부담감을 포함하여 총 7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음주행동

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위험음주와 폭음빈도를 포함시켰다.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음주기대

음주기대는 개인이 가지는 음주의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를 사정할 수 있는 음주행동에 선행되는 중요한 변수이다(Oei와 Jardim, 2006). 본 연구에서는 Oei 등(2006)이 음주행동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한 음주기대척도(Young과 Oei, 1990)를 사용하였다. 음주기대 설문지(Drinking Expectancy Questionnaire)는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알코올기대척도(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의 항목을 수정하여 발전시킨 것이다(NIAAA, 2006; Young과 Oei, 1990). 음주기대설문지를 원문에서 제시된 개념과 설문구성 및 의도를 반영하여 번안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수정·보완하였으며,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요인분석을 통해 긍정적 기대요인과 부정적 기대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기대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Lee 등(2003)의 연구에서 .92~.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92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 2) 음주의 긍정적 기능

음주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하거나 기대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회적 즐거움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다(Thombs, 1994). 심층면접에서 여성 직장인들은 친목도모나 갈등해소와 같은 인간관계측면과 사내정보나 인사이동 등의 정보획득측면에서 음

주가 긍정적인 기능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심층면접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의미 있는 진술이자 직장과 관련한 음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설문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술을 마시면 직장동료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다'와 '술자리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등의 4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사전예비조사 결과, 음주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 3)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는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원을 탐구하고 환경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인 사정과 치료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eattie 등(1992)이 NIAAA의 지원을 받아 직장인들의 음주관련 요인을 사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Your Workplace(YWP)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음주에 대한 직장규범(norms)과 태도에 관한 지각된 영향 및 부정적 결과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Rice 등, 1997), 직무수행과 관련한 음주의 부정적 영향(5문항)과 알코올 소비에 대한 지지(3문항) 및 절주에 대한 지지(3문항)의 3개 하위범주, 1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Beattie 등(1992)의 연구에서 .77, 권구영(2005)의 논문에서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 4) 주변인의 음주정도

가족과 친구 및 직장동료의 음주행태는 개인의 음주행동과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며(이민규, 1993; Cumsille 등, 2000; Windle, 1996) 남성에 비해 여성은 주변

인의 음주정도가 음주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eonard와 Blane,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indle(1996)와 Cumsille 등(2000)이 사용한 주변인의 음주비율 측정법을 적용하여 4문항으로 가족과 친구 및 직장동료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변인의 음주정도에 대한 신뢰도는 가족의 음주영향이 .85이며 친구 및 직장동료의 음주영향이 .79로 나타났다(김인석, 2001, 김인석과 이연희, 2003).

### 5) 직장 내 음주문화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 내 회식에서 음주가 빠지지 않고 술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여겨져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상사나 동료와 같이 직장 내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받을수록 음주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명순과 김광기, 2004). 심층면접을 통해 '회식 때 상사가 술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한다'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만 마신다' 및 '상사가 술을 권하면 거절하기 힘들어 그냥 마신다' 등을 포함하여 총 6문항이 도출되었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직장 내의 음주문화가 강압적이고 음주를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예비조사 결과 신뢰도는 .75로 나타나 설문 문항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6) 회식 때 술자리에서의 부담감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직장인들의 경우, 회식 때 술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음주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술자리가 즐겁다고 언급한 여성들이 있는 반면, 폭탄주와

같은 과도한 음주가 부담이 되고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이러한 회식시 술자리에서의 부담감은 직장인의 음주문화에도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 '술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간다'와 '술자리에서 폭탄주와 같은 과도한 음주가 부담이 된다' 등의 총 4문항이 도출되었고, 사전예비조사 결과 신뢰도는 .61로 나타났다.

#### 7) 위험음주와 폭음빈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일차예방의 관점에서 일반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식을 통해 찾은 폭음과 과음을 경험하는 직장인의 음주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음주와 폭음빈도를 종속변수로 포함시켰다. 위험음주의 측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도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의 한국판(AUDIT-K)를 사용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알코올 사용등급분류를 개입수준에 따라 7점 이하는 저위험수준, 8점 이상 15점 이하는 위험수준, 16점 이상 19점 이하는 유해수준 그리고 20점 이상은 의존수준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알코올 의존보다는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8점을 기준으로 하여 8점을 이상을 위험음주로 분류하였다(Babor 등, 2001). 또한 폭음빈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인 지난 30일 동안 한자리에서 맥주 5잔(캔) 혹은 소주 1병 이상 마신 횟수

(Wechsler 등, 1994)로 정의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세 단계에 걸쳐 SPSS 12.0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및 t-검정 등을 활용하였고, 둘째, 개인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위험음주를 '예/아니오'로 이분화시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음주소비량과 폭음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여성 직장인이지만 남성 직장인과 구분되는 여성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첫 번째 분석에는 여성과 남성 직장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총 375명의 설문참여자 중 여성 직장인이 56.2%(209명)로 남성 직장인(43.8%, 163명)보다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44.9%(167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대(157명, 42.2%), 40대(37명, 9.9%), 50대(11명,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직장관련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대기업(150명, 40.3%)과 중소기업(134명, 36.0%)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연구대상자의 53.4%(198명)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직(132명, 35.6%), 판매 및 서비스직(31명, 8.4%), 기능단순노무직(5

명, 1.3%)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대부분이 평사원(163명, 44.2%)이었고, 월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43.6%(15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lt;표 1&gt;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75)

구 분	빈 도(명)	비 율(%)
성별		
여자	209	56.2
남자	163	43.8
나이		
20대	157	42.2
30대	167	44.9
40대	37	9.9
50대	11	3.0
직장형태		
대기업	150	40.3
중소기업	134	36.0
공기업	10	2.7
기타	78	21.0
직종		
전문직	132	35.6
사무직	198	53.4
판매 및 서비스직	31	8.4
기능단순노무직	5	1.3
기타	5	1.3
직위		
평사원	163	44.2
대리급	80	21.7
과장급	42	11.4
차장급	14	3.8
부장급	20	5.4
기타	50	13.6
월소득		
100만원 미만	12	3.3
100-200만원 미만	159	43.6
200-300만원 미만	116	31.8
300-400만원 미만	48	13.2
400-500만원 미만	14	3.8
500만원 이상	16	4.4

## 2. 남녀 직장인의 음주관련 특성 비교

음주관련변수에 대한 남녀 직장인들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여성 직장인 중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비음주자는 4.3%(16명)에 불과하고, 48.7%(181명)가 지난 1년 동안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에서 보고한 여성 직장인의 현음주자 비율(52.0%)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여성 직장인의 절반정도가 현재 음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hi^2 = 10.52$ ,  $df = 2$ ,  $p < .01$ ). 함께 음주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들을 직장동료나 업무관련 고객 혹은 친구와 함께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25%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자 직장인의 경우에는 친구(12.3%)보다는 직장동료나 업무관련 고객(31.3%)과 함께 술을 마시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21.41$ ,  $df = 2$ ,  $p < .001$ ) 이는 직장인의 음주가 동료의 음주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대부분의 음주가 회식이나 접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권구영, 2005, NIAAA, 2006)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긍정적 음주기대와 부정적 음주기대는 모두 여성 직장인의 평균이 남성 직장인의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음주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여성 직장인이 평균 14.08( $sd = 2.69$ )이고 남성 직장인이 평균 15.39( $sd = 2.49$ )였다 ( $t = 4.86$ ,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직장인들에게 음주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직장인들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는 남성 직장인이 평균 39.08( $sd = 7.03$ )이었고 여성 직장인이 평균 33.84( $sd = 7.18$ )로 나타나 여성 직장인에 비해 남성 직장인들의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가 더 허용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 $t = 7.04$ ,  $p < .001$ ). 이와 비슷하게 직장 내 음주문화의 경우에도 여성( $M = 17.49$ ,  $sd = 4.66$ )에 비해 남성( $M = 19.29$ ,  $sd = 3.92$ )이 더 허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t = 3.96$ ,  $p < .001$ ). 또한 남성 ( $M = 0.32$ ,  $sd = 0.03$ )의 경우에 주변인의 음주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4.03$ ,  $p < .001$ ). 이러한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직장의 규범과 태도, 직장 내 음주문화 및 주변인의 높은 음주정도가 여성에 비해 음주빈도나 음주량이 높은 남성 직장인의 음주를 가속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회식 때 술자리에서의 부담감은 여성 직장인의 평균이 13.51( $sd = 2.58$ )로 남성 직장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t = 2.91$ ,  $p < .01$ ), 이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여겨지고 회식을 통해 과음과 폭음을 하는 우리나라의 직장음주문화로 인해 여성 직장인들이 회식 때 음주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위험음주의 비율은 남성 직장인(102명, 27.4%)과 여성 직장인(76명, 20.4%)이 모두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chi^2 = 25.22$ ,  $df = 1$ ,  $p < .001$ ). 우리나라 전체 성인 남성과 여성의 위험음주율이 각각 59.0%, 13.8%임을 감안해 볼 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전체 남성집단에 비해 남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율은 절반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여성집단에 비해 특히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 직장인의 음주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난 30일 동안의 음주빈도와 폭음빈도는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에 비해 높

&lt;표 2&gt; 남녀 직장인의 음주관련 특성 비교

(N=375)

구 分	전 체	여 성	남 성	$\chi^2$ , $t^2$
음주여부 <sup>a</sup>				
비음주자	20(5.4)	16(4.3)	4(1.1)	$\chi^2 = 10.52^{**}$
과거음주자	14(3.8)	12(3.2)	2(0.5)	(df=2)
현재음주자	338(90.9)	181(48.7)	157(42.2)	
함께 마시는 사람				
직장동료/업무관련 고객	198(56.4)	88(25.1)	110(31.3)	$\chi^2 = 21.41^{***}$
친구	130(37.0)	87(24.8)	43(12.3)	(df=2)
기타	23(6.6)	18(5.1)	5(1.4)	
음주기대				
긍정적 음주기대	57.66(10.42)	56.91(11.06)	58.52(9.57)	$t = 1.49$
부정적 음주기대	35.88(8.27)	35.00(8.48)	36.92(7.94)	$t = 2.25^{*}$
음주의 긍정적 기능	14.65(2.67)	14.08(2.69)	15.39(2.49)	$t = 4.86^{***}$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	36.12(7.54)	33.84(7.18)	39.08(7.03)	$t = 7.04^{***}$
주변인의 음주정도	0.46(0.31)	0.29(0.20)	0.32(0.03)	$t = 4.03^{***}$
직장 내 음주문화	18.27(4.42)	17.49(4.66)	19.29(3.92)	$t = 3.96^{***}$
회식 때 술자리에서의 부담감	13.18(2.56)	13.51(2.58)	12.74(2.49)	$t = 2.91^{**}$
음주수준				
비위험음주	194(52.2)	133(35.8)	61(16.4)	$\chi^2 = 25.22^{***}$
위험음주	178(47.8)	76(20.4)	102(27.4)	(df=1)
음주빈도(지난 30일)	5.25(5.43)	4.31(4.93)	6.43(5.81)	$t = 3.64^{**}$
평균 음주량(지난 30일) <sup>b</sup>	58.35(159.74)	47.99(176.40)	71.60(137.12)	$t = 1.36$
폭음빈도(지난 30일)	2.83(4.93)	1.85(4.01)	4.01(5.63)	$t = 4.01^{***}$

\*p&lt;.05, \*\*p&lt;.01, \*\*\*p&lt;.001

Note: 교차분석은 빈도(%), t-검정은 평균(표준편차)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a: 비음주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을, 과거음주자는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과거에는 마신 사람을, 현재음주자는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b: 평균음주량의 측정은 지난 30일간 음주빈도와 마시는 양을 동시에 고려하는 QF(Quantity-Frequency) 방법으로 계산된 것이다. 술의 종류에 따라 12g을 기준으로 표준음주(standard drink)를 계산하였다.

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대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남녀 직장인의 음주행위를 비교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비율과 음주빈도 및 음주량 등은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는 낮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생물학적 취약성으로 인한 음주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볼 때, 여성 직장인의 음주로 인한 영향이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여성 직장인과 남성 직장인의 음주행태 및 음주관련 특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입을 계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 3.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chi^2 = 112.20$ ,  $df=10$ ,  $p<.001$ ). 이 분석에서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아닌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앞 모델에서 위계적 분석의 주된 목적은 새로 투입한 변수로 인한 설명력의 변화를 보는 것에 있는데,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일반적으로  $R^2$  값을 제시하지 않으며, 계산이 가능하기는 하지만(예로 Cox & Snell  $R^2$  또는 Nagelkerke  $R^2$ ) 이는 OLS 회귀분석결과에서 제시하는  $R^2$ 와 같은 의미의 값이 아니므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Pedhazur, 1997).

개인요인에서는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를 예측하는 요인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회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 주변인의 음주정도, 직장 내 음주문화가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위험음주를 예측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가 허용적 일수록 여성 직장인이 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은 23%(O.R.=1.23,  $p<.001$ ) 증가하고, 주변인의 음주정도에 대한 점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여성 직장인이 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은 3%씩 증가한다(O.R.=1.03,  $p<.001$ ). 또한, 직장 내 음주문화가 강압적이고 음주를 권유할수록 위험음주자가 될 가능성은 27% 증가한다(O.R.=1.27,  $p<.001$ ). 여성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조직과 관련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여성 집단에 비해 직장관련 변수들이 위험음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 직장인의 음주에 개입하는 데 있어 직장의 환경적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05)

변수	Coefficient	Odds Ratio	위험음주	
			Confidence Interval Lower 95%	Upper 95%
직장형태	.42	1.53	.47	4.98
직종	.10	1.12	.21	5.89
월소득	.05	1.05	.27	4.02
긍정적 음주기대	-.06	.94	.88	1.02
부정적 음주기대	.04	1.04	.97	1.12
음주의 긍정적 기능	.00	1.00	.83	1.21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	.01***	1.23	1.11	1.36
주변인의 음주정도	.03***	1.03	1.02	1.05
직장 내 음주문화	.24***	1.27	1.12	1.44
회식 때 술자리에서의 부담감	-.18	.84	.68	1.04

-2LL = 140.80, 모델  $\chi^2 = 112.20$ ,  $df=10$ ,  $p<.001$

\* $p<.05$ , \*\* $p<.01$ , \*\*\* $p<.001$

#### 4. 여성 직장인의 폭음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 직장인의 폭음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일반적인 특성을 투입한 결과, 직장형태, 직종, 월소득 모두 폭음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요인을 투입한 결과,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단계에 비해 9%로 증가하였고(Adjusted R<sup>2</sup>=.09, F=4.40, p<.001), 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개인요인 중 부정적 음주기대가 여성 직장인의 폭음빈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 음주관련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부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여성 직장인의 폭음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t;표 4&gt; 여성 직장인의 폭음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04)

변수	폭음빈도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직장형태	.72	.11	.78	.12	1.20	.19**
직종	1.06	.10	1.01	.10	.27	.03
월소득	.93	.10	.90	.10	.43	.05
긍정적 음주기대			-.03	-.12	-.05	-.19*
부정적 음주기대			.13	.36***	.07	.19*
음주의 긍정적 기능			-.02	-.02	-.04	-.03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					.22	.52***
주변인의 음주정도					.01	.06
직장 내 음주문화					.07	.12
회식 때 술자리에서의 부담감					-.06	-.05
상수	1.18		-1.12		-5.91	
F	2.44		4.40 ***		12.43 ***	
Adjusted R <sup>2</sup>	.02		.09		.36	
R <sup>2</sup> 변화량			.07		.27	
R <sup>2</sup> 변화량의 F			6.49 **		21.48 ***	

\*p&lt;.05, \*\*p&lt;.01, \*\*\*p&lt;.001

3단계에서는 앞의 두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장의 환경적 요인을 투입하였고, 위험음주 변량의 설명력은 36%로 증가하였고(Adjusted R<sup>2</sup>=.36, F=12.43,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량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변수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음주기대가 낮을수록(B=-.05, p<.05), 부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B=.07, p<.05),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가 허용적일수록(B=.22, p<.001) 여성 직장인의 폭음빈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 직장인의 폭음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장형태, 긍정적 음주기대와 부정적 음주기대 및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였다. 이 중에서도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 $\beta=.52$ )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음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한국의 문화는 음주에 대해 매우 허용적인 문화이며, 직장의 음주문화도 이러한 양상을 잘 반영한다. 음주로 인한 폐해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코올 관련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알코올로 인한 영향은 남성과 여성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더욱 알코올로 인한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여성 직장인에 초점을 맞추어 위험음주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선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직장인이 인식하는 음주와 관련된 변수들을 탐색하였고, 여기서 탐색된 변수와 기존의 변수를 활용하여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 및 폭음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직장인의 음주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음주관련특성에 대한 남녀 직장인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여성 직장인 중 지난 1년 동안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약 반 정도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연구결과(52%)와 유사한 결과였고, 이는 증가하고 있는 여성 직장인의 음주

를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율은 20.4%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에서 보고한 여성 직장인의 문제음주율(58.0%)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남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율이 27.4%인 것과 비교할 때, 여성의 위험음주비율이 낮다고 해석할 수 없고, 이는 여성 직장인 음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 30일 동안의 음주빈도, 평균 음주량과 폭음빈도 및 폭탄주 빈도는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직장인 음주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최승희 등, 2001; 권구영, 2005; 이수영, 2006)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남녀 직장인의 음주행위를 비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여성음주율과 알코올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여성 직장인의 음주문제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허용적인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와 직장 내 음주문화 및 주변인의 음주정도가 위험음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와 주변인의 음주정도가 음주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권구영, 2005; 이희종과 제갈정, 2002; Ames와 Grube, 1999; Leonard와 Blane, 1999)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직장인의 음주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 사회 전체의 음주문화와 음주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직장인의 폭음빈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결과, 긍정적 음주기대는 폭음빈도를 감소시키고, 부정적 음주기대와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는 폭음빈도를 증가시키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직장의 규범과 태도가 폭음에 영향을 주는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이수영, 2006)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음주기대가 폭음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음주기대가 폭음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 예측요인으로 드러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음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소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NIAAA, 2006; Oei와 Jardim, 2006), 여성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 기대가 오히려 폭음을 유발하는 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장인은 직장생활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하고,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오히려 스트레스 표출의 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한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연구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직장인이 인식하는 음주관련변수를 탐색하고, 이러한 변수를 포함하여 여성 직장인의 음주 영향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변수들이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직장인의 음주, 특히 여성 직장인의 음주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한 현실에

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연구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개인 요인보다 직장의 음주관련 환경적 요인이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를 예측하는 더욱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성 음주 혹은 위험음주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적 개입에서 직장 내의 음주에 대한 인식과 규범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회식과 같은 자리를 대신하는 다양한 대안문화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최근 몇 직장에서 회식을 대신하여 문화공연을 함께 하거나 나들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대안문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인의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인 개인 뿐 아니라 직장동료나 상사의 인식개선을 겨냥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음주를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분위기를 지양하고, 비음주자에 대한 배려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과 관련된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폭음빈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음주기대는 음주행동에 부적인 영향(즉, 부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술을 마실 가능성이 낮아짐)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정슬기, 2007)에서 부정적 기대가 여성의 문제음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이는 여성 직장인이 부정적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음주를 여성에게 기대하는 행동이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정슬기, 2007). 따라서 여성 직장인의 음주 예방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음주가 가진 폐해를 강조하기보다는 여성 직장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기술이나 해소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예방은 물론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직장인의 과도한 음주를 예방할 수 있는 직장조직 전반의 바람직한 사회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도수의 술을 마시거나 폭탄주 등을 권유하지 않음으로써 절주하는 회식문화를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연관람이나 스포츠 활동참여 등을 통해 직장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대안문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기업과 기관에 종사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직장인 전체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직장형태와 직종 및 고용형태를 가진 직장인들을 연구에 포함시켰으나, 비용과 시간 등의 실제적인 조사 가능성의 문제로 연구대상과 조사지역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성음주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대생이나 주부 등을 포함하여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주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두 요인만을 가지고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향후에는 심리사회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중 여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을 받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과거경험, 우울증 등이 있다. 또한 환경적 요인 중 여성음주와 관련 있는 변수로는 가족 중 음주 문제자의 존재여부, 본인이 지각하는 가족의 음주에 대한 허용도, 가족의 낮은 정서적 지지 등을 포함한다(정슬기, 2007).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를 통해 여성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여성 직장인의 위험음주와 음주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과 관련하여 보다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와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하여 여성 직장인들의 위험음주와 음주경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매개 혹은 완충효과 및 다양한 원인과 경로를 분석한다면, 이는 여성 직장인의 음주에 대해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구영.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무직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05;57(2):93-118.
- 김광기.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연구. *대학보건학회지* 1996;22(1):162-192.
- 김광숙.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관련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3;17(2):212-223.
- 김명순, 김광기. 직업관련 특성이 여성의 음주소비에 미친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4;21(1):1-23.
- 김상대, 송석훈, 이산진, 하태영, Lin, KP. 한국, 독일, 미국 기업의 직장인 음주대책 비교연구(I) 경제논총 2002;26:1-26.
- 김옥수, 김계하.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 비교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01;13(3):363-372.
- 김인석. 음주 및 음주문제의 보호요인과 취약성 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델링[박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 김인석, 이연희.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003;22(3):525-541.
- 김통원. 도시직장인의 음주 및 음주운전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가족복지학* 2001;7:35-57.
- 박두명, 남범우, 신광철, 나철. 가족력 유무에 따른 여성 알코올 중독자의 임상적 차이 연구. *한국정신의학회지* 1996;35(6):1195-1206.
- 박영미, 김현숙, 김광기. 음주행동과 음주운전에 관한 관련성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6;23(1):45-61.
- 박용주. 우리나라 음주문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보건학종합학술대회 발표자료* 1999년.
- 박은영, 김영환. 외현적, 암묵적 알코올 기대와 음주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005;24(4):831-848.
- 박희랑, 이장주. 여성음주문화 실태 연구: 여성이 술을 마실 때.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004;9(2):39-52.
- 성상경, 신동환, 송종호, 이규항. 여성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일 정신 병원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신의학회지* 1999;38(6):1262-1272.
- 신완칠, 김혜경. 울산지역 여대생의 음주행동에 관한 조사. *생활과학논문집* 2001;3(2):31-42.
- 윤숙희, 배정이, 이소우, 안경애, 김세은.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음주 및 흡연 행태. *보건과 사회과학* 2006;19:31-50.
- 이미형, 이영자. 직장인 문제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 *정신간호학회지* 2000;9(2):180-194.
- 이민규.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93;12(1):165-179.
- 이수영. 직장인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 2006;7(2):113-136.
- 이희종, 제갈정. 직장인 음주문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2.
- 정슬기.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 영향요인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07;27(12):176-198.
- 정우진.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술 주종과 사회경제적 비용의 연관성 연구. *대한보건연구* 2006;32(1):1-8.
- 정원후. 입원 남성 및 여성 알코올리즘 환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및 인격적 특성비교. *한국정신의학회지* 1997;36(4):688-697.
- 최승희, 김명, 김광기. 서울 지역 사무직 근로자의 음주에 관한 행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1;18(2):27-44.
- 통계청. 1991년-2005년 사망원인통계. 대전: 통계청, 1991-2005.
- 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200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의식행태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 성인 보건의식행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조사결과 심층분석 연구: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부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사업장 근로자의 절주능력 증진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 경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6.
- 허은정, 김명순, 김광기. 일부 지역 여성의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1;15(1):202-215.
- 허혜경, 김기연, 박소미, 신윤희.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성, 음주,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3;20(2):19-33.
- Ames GM, Grube JW. Alcohol availability and workplace drinking: Mixed method analys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999;60(3):383-393.
- Ames GM, Janes CR. A cultural approach to conceptualizing alcohol and the workplace. Alcohol Health & Research Works 1992;16(2):112-119.
- Ammendola A, Gemini D, Iannaccone S, Argenzio F, Ciccone G, Ammendola E, Serio L, Ugolini G, Bravaccio F. Gender and peripheral neuropathy in chronic alcoholism: A clinical-electroneurographic study. Alcohol and Alcoholism 2000;35:368-371.
- Angove R, Fothergill A. Women and alcohol: Misrepresented and misunderstood.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3;10:213-219.
- Babor TF, Higgins-Biddle JC, Saunders JB, Monteiro MG.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hqlibdoc.who.int/hq/2001/WHO\\_MSD\\_MSB\\_01.6a.pdf](http://whqlibdoc.who.int/hq/2001/WHO_MSD_MSB_01.6a.pdf). 2001.
- Beattie MC, Longabaugh R, Fava J. Assessment of alcohol-related workplace activities: Development and testing of Your Workpla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992;September:469-475.
- Bernards S, Graham K, Demers A, Kairouz S, Wells S. Gender and the assessment of at-risk drinking: Evidence from the GENACIS Canada (2004-2005) telephone survey version of the AUDIT.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007;88:282-290.
- Brienza RS, Stein MD. Alcohol use disorder in primary care: Do gender-specific differences exist?.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002;17:387-397.
- Chung SK, Jun HJ, Kim SS. Workplace drinking environment and women's drinking in Korea. A paper presented at 2007 Annual East Asian Social Policy Network Conference. Held in Toyko, Japan 2007.
- Cooper ML, Russel M, Frone MR. Work stress and alcohol effects: A test of stress-induced drink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0;31(3):260-276.
- Cowan L, Deering D, Crowe M, Sellman D, Cuttner-Collier A, Adamson S. Alcohol and drug treatment for women: Clinicians' beliefs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2003;12:48-55.
- Cumsille PE, Sayer AG, Graham JW. Perceived exposure to peer and adult drinking as predictors of growth in positive alcohol expectancie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000;68(3):531-536.
- Frone MR. Work stress and alcohol use. Alcohol Research and Health 1999;23(4):284-291.
- Graham K, Wilsnack R, Dawson D, Vogeltanz N. Should alcohol consumption measures be adjusted for gender differences?. Addiction 1998;93(8):1137-1147.
- Greenberg ES, Grungberg L. Work alienation

- and problem alcohol behavio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5;36(1):83-102.
- Grunberg L, Moore S, Greenberg ES. Work stress and problem alcohol behavior: A test of the spillover model.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98;19:487-502.
- Hagihara A, Tarumi K, Nobutomo K.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stress and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3;64(6):874-883.
- Hodgson R, John B. Gender, gender role and brief alcohol interventions. *Addiction* 2004;99(1):3-4.
- Holdcraft LC, Iacono WG. Cohort effects on gender differences in alcohol dependence. *The Study of Addiction to Alcohol and Other Drug* 2002;97:1025-1036
- Holmila M, Raitasalo K. Gender differences in drinking: Why do they still exist?. *The Study of Addiction to Alcohol and Other Drug* 2005;100:1763-1769.
- Johnson V, White HR.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specific and generalized stress and alcohol and marijuana use among recent entrants to the labor force. *Journal of Drug Issues* 1995;25:237-251.
- Jonas HA, Dobson AJ, Brown WJ. Patterns of alcohol consumption in young Australian women: Socio-demographic factors, health-related behaviours and physical health.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000;24(2):185-191.
- Kinney J. Loosening the grip: a hand book of alcohol information. McGraw-Hill, 2003.
- Lee NL, Oei TSP, Greeley JD, Baglioni AJ.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 drinking expectancy questionnaire: A review of the factor structure and a proposed new scoring metho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3;64:432-436.
- Leonard KE, Blane HT.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The Guilford Press, New York London, 1999.
- McCreary DR, Sadave SW. Stress, alcohol use and alcohol-retated problems: the influ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affect in two cohorts of young adul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0;61(3):466-474.
- McPherson M, Casswell S, Pledger M. Gender convergence in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problems: Issues and outcomes from comparisons of New Zealand survey data. *The Study of Addiction to Alcohol and Other Drug* 2004;99:738-748.
- Monette, D., Sullivan, T. & DeJong, C. (2005). Applied social research toll for the human service. Thomson Brooks/Cole.
-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Alcohol and workplace. Alcohol Alerts, 44, <http://www.niaaa.nih.gov>, 1999a.
-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Women more vulnerable to alcohol's effect?. Alcohol Alerts, 46, <http://www.niaaa.nih.gov>. 1999b.
-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Young adult drinking. Alcohol Alerts, 68, <http://www.niaaa.nih.gov>. 2006.
- Oei TPS, Jardim CL.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rinking behaviour in Asian and Australian student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006;87(2):281-287.
- Palm J. Women and men: same problems, different 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7;16:18-31.
- Parker DA, Harford TC. Gender-role attitudes, job competition and alcohol consumption among women and men.

-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992;16(2): 159-165.
- Pedhazur EJ. Multiple Regression in behavioral research: Explanation and prediction.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7.
- Pfefferbaum A, Rosenbloom M, Deshmukh A, Sullivan EV. Sex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alcohol on brain structur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001;158:188-197.
- Rice C, Longabaugh R, Stout RL. A comparison sample validation of "Your Workplace": An instrument to measure perceived alcohol support and consequences from the work environment. Addictive Behaviors 1997;22(5):711-722.
- Roman PL, Blum TC. The workplace and alcohol problem prevention. Alcohol Research and Health 2002;26(1):49-57.
- Schmidt C, Klee L, Ames G. Review and analysis of literature on indicators of women's drinking problem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1990;85(2):179-192.
- Schweinsburg BC, Alhassoon OM, Taylor MJ, Gonzalez R, Videen JS, Brown GG, Patterson TL, Grant I. Effects of alcoholism and gender on brain metabolism.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003;160:1180-1183.
- Smith WB, Weisner C. Women and alcohol problems: A critical analysis of the literature and unanswered question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000;24(8):1320-1321.
- Svare GM, Miller L, Ames G. Social climate and workplace drinking among women in a male-dominated occupation. Addictive behaviors 2004;29:1691-1698.
- The 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at Columbia University. Substance abuse and the American woman. 1996.
- Thombs DL. Introduction to Addictive Behavior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London, 1994.
-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B.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A national survey of students at 140 campus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4; 272:1672-1677.
- Wilsnack RW, Vogeltanz ND, Wilsnack SC, Harris TR. Gender differences in alcohol consumption and adverse drinking consequences: cross-cultural patterns. Addiction 2000;5(2):251-265.
- Windle M. An alcohol involvement typology for adolescents: Convergent validity and longitudinal stabilit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996;57(6):627-637.
- World Health Organization. Alcohol, gender and drinking problems: Perspectives from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2005a.
-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der, health and alcohol use. <http://www.who.int>. 2005b.
- Yang MJ, Yang MS, Kawachi I. Work experience and drinking behavior: alienation, occupational status, workplace drinking subculture and problem drinking. Public Health 2001;115:265-271.
- York JL, Welte J, Hirsch J. Gender comparison of alcohol exposure on drinking occasion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3;64:790-801.
- Young R, Oei TPS. Drinking Expectancy Profile.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1990.
- Zins M, Gueguen A, Leclerc A, Goldberg M. Alcohol Consumption and marital status of French women in the GAZEL cohort: a longitudinal analysis between 1992 and 1996.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3;64:784-789.

<ABSTRACT>

## Effects of Workplace Alcohol-related Environment on Drinking Behaviors among Female Employees

Hyun Jin Jun · Sul Ki Chung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workplace drinking environment on drinking behaviors among female employees and thereby attempt to lay a ground for future prevention of drinking problems triggered by workplace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the study, variables related to drinking behavior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female employees were explored. And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drinking behavior.

**Methods:** The sample included 400 female and male employees in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Korea.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explore workplace variables related to female drinking, an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variables and drinking behaviors (alcohol consumption, risky drinking, and binge drinking frequencies).

**Result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function of drinking and drinking culture at workplace and the pressure to drink were derived from in-depth interviews. Second, 47.2% of female employees were current drinkers and 20.4% were risky drinkers. Third, drinking norms and attitude at workplace, influence of peer group, and drinking culture at workplace were found to be predictive factors of harmful drinking. Fourth, drinking expectancy and drinking norms and attitude at the workplace were found to influence drinking binge frequencies.

**Conclusion:** The study indicates the importance of the workplace environmental factors in female employee's drinking behavior, and addresses the need for interventions geared toward changing the workplace environment regarding alcohol use.

**Key words :** Female employees, workplace drinking environment, alcohol consumption, binge drinking, risky drinking frequencies